

데이비드 서먼 개인전: 『Soft Eye, Hard Nose』 26. 5. 2. – 6. 6.

David Surman (b.1981)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말(horse)'이라는 모티프를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작가이다. 특정한 선택이라기보다, 가족적 환경과 개인적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 모티프는 그의 작업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인간과 함께해 온 말의 상징성과 그에 대한 숭배적 시선은 그의 조형적 관심의 출발점이 된다.

말은 우선적으로 시선을 끌어당기는 조형적 형태이며, 그 자체로 강한 심상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존재이다. 동시에 이는 미술사 전반에 반복적으로 등장해온 보편적 이미지로서, 꽃, 여성, 아이, 전쟁과 같은 근원적 주제들과 나란히 위치해왔다. 선사시대 동굴벽화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시각적 서사 속에서 말은 끊임없이 달리고 도약하는 존재로 기록되어 왔다. 인류의 이동과 인식의 확장을 가능하게 했던 매개로서의 말은,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상상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말은 더 이상 필수적인 노동의 주체가 아닌, 상징적이고 정서적인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David (artist)의 작업은 말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과거와 현재, 기능과 상징, 실재와 기억 사이의 간극을 탐색한다.

그의 작업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역사적 이미지로서의 말이 지닌 문화적 축적과 개인적 경험이 교차하는 지점을 드러낸다. 이는 인간과 동물, 현실과 상상, 그리고 이미지와 의미 사이의 관계를 재고하게 하는 시도로 확장된다.

Artist Note

나는 10년 넘게 말이라는 모티프를 작업해왔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기보다, 이미 내 곁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에 가깝다. 말에 깊이 매료되어 있던 가족 환경 속에서, 말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이상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말은 무엇보다도 강렬한 주목을 끄는 아름답고 흥미로운 형태이며, 동시에 상상력을 자극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소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다.

말은 미술사의 거의 모든 시기와 영역에 등장한다. 꽃, 여성, 아이, 전쟁과 같은 보편적 주제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동굴 벽화 속 춤추는 인물들, 사냥하는 사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달리고 뛰어오르는 말의 형상을 발견한다. 말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했고, 지면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 더 먼 곳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간의 상상력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말에 의존해 전쟁을 치르거나 생존하지 않는다. 대신 말은 놀이와 여가의 영역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 부드러운 눈과 유려한 신체를 통해 말은 우리의 감정을 담아낸다. 그 눈에는 갈망, 두려움, 광기, 사랑과 애정과 같은 다양한 감정이 투영된다. 말은 인간 내면의 복합성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존재다. 나는 말의 이미지를 오직 상상에 의존해 그린다. 빠르고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작업하며 눈, 코, 귀, 다리와 같은 부분에서 필요한 요소를 찾아간다. 나는 애정을 가지고 화면에 접근하지만 동시에 강하게 밀어붙이며, 말이라는 존재가 지닌 또 다른 의미를 끌어내고자 한다.

제목은 말 문화에서 균형 잡힌 말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특성을 가리킨다. '부드러운 눈(soft eye)'은 온화한 성격을 의미하며, '단단한 코(hard nose)'는 명령과 지시에 잘 반응하는 능력을 뜻한다. 반대로 '단단한 눈(hard eye)'은 공격적인 기질을, '부드러운 코(soft nose)'는 통제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Soft Eye, Hard Nose'는 이상적인, '좋은' 말을 가리킨다. 우리는 지금 불안정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확신은 흔들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 역시 불확실해지고 있다. 나는 이 여정 속에서 여전히 의지할 수 있는 존재들을 붙잡고자 한다. 말은 익숙함을 통해 위안을 주는 동시에, 그 눈의 반짝임과 떨리는 다리를 통해 우리가 처한 불안한 현실 또한 드러낸다.